VOL.347
2024. 4. 14.

〈주 바라봄 기도회〉* 특별호

* 2024. 2. 20~3.30. 사순절 기간에 있었던 40일 특별새벽기도회

예배의 감격이 있는 **교회** ——— **삶**의 감동이 있는 **성도**

열린신문

함께
그리고
나란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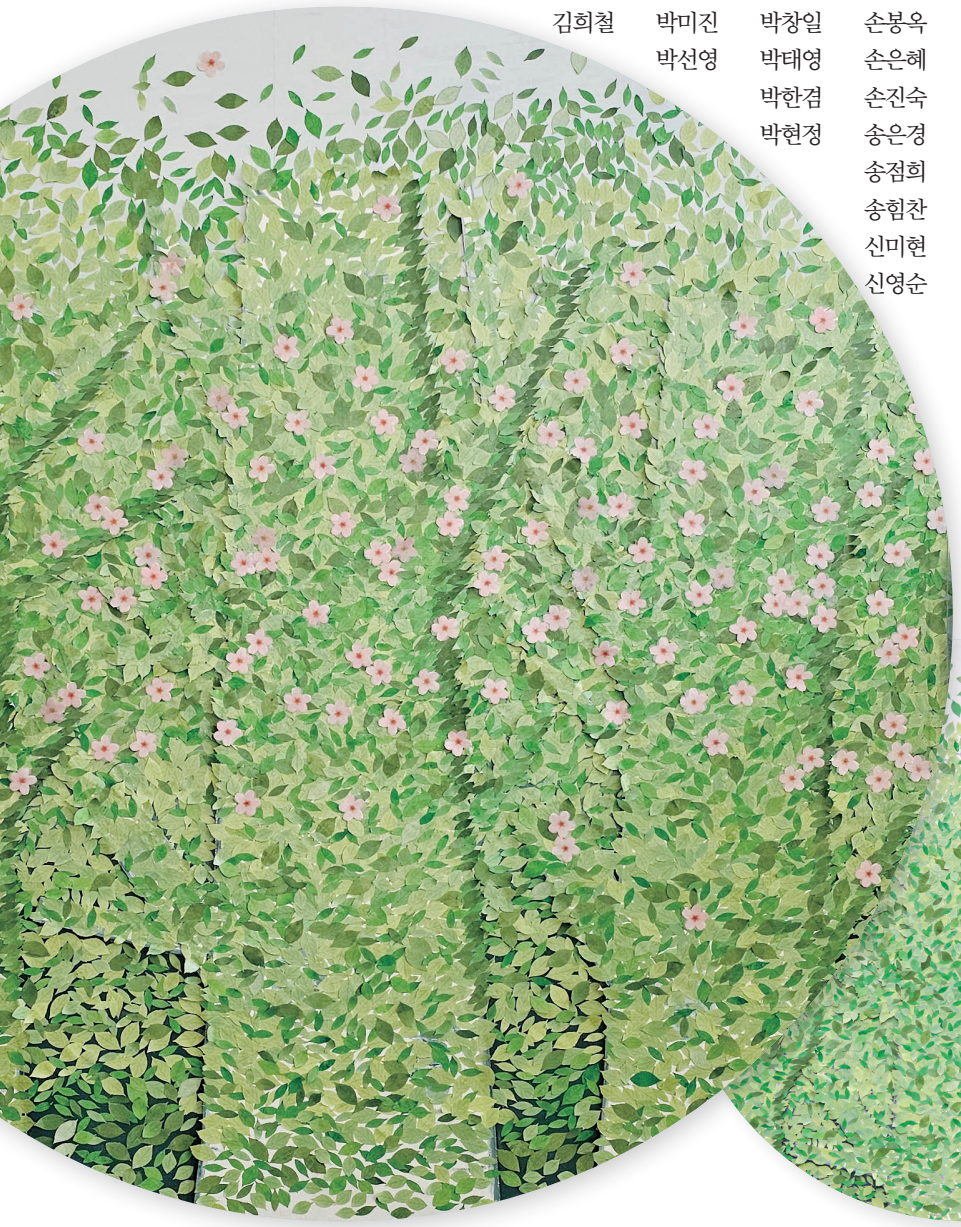
주바라봄1 _ 이웃사랑섬김후원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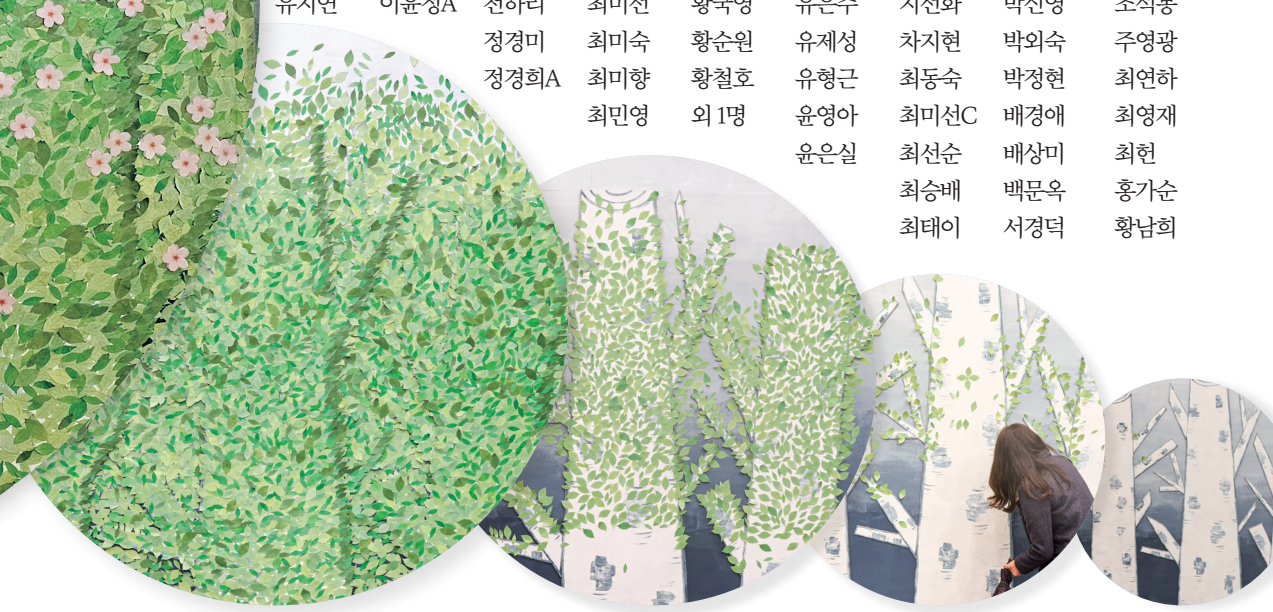
* 40일 동안 함께해 주신 분들로서, '후원자A'는 현장참석자, '후원자B'는 온라인참석자, '후원자C'는 현장+온라인참석자입니다

후원자A,B,C는 각각 안산의 자비량 선교사 자녀 권*은, 남양주의 목회자 자녀 박*윤, 일산의 목회자 자녀 임*은 치료와 양육을 (밀알복지재단을 통해) 후원합니다
김성진 담임목사 및 교직원 외 43,948명의 온·오프라인 참석자들은 '열린교회' 이름으로 안양·의왕 지역의 독거노인분들께 쌀을 지원합니다

후원자A
강기순
강병관
강성만
강영순
강원진
강정애
고은하
구명순
구민호
구양순
구용회
권금옥
권은성
권인혁
금성철
김경순
김경아C
김경해
김근화
김기현
김남용
김다엘
김대영
김도흔
김동익
김라희
김명정
김민기
김봉희A
김사라
김삼기
김상원
김상중
김석배
김선섭
김선희E
김성원
김세나
김수정
김순미
김순임
김연예
김연주
김연지
김예린
김용신
김용연
김운경
김원준
김윤하
김윤향
김은희A
김윤희C
김이숙
김잠숙
김정민D
김정순A
김정순C
김정옥B
김주표
김지영
김지영C
김지영D
김지우
김지혜H
김진범
김철환
김춘경
김하은
김혜숙C
김혜원D
김혜정F
김혜진C
김홍철
김환
김희락
김희영
김희정
김희철
나근주
나동훈
남궁지선
남미은
남삼헌
남윤아
노경훈
도경순
류정진
박경덕
박계화
박광일
박국희
박미생
박미아
박미주
박미진
박선영
박선희
박성남
박순정
박오례
박용혜
박은정B
박인탁
박재경
박정갑
박정덕
박정아
박정현B
박정화
박종필
박종훈
박차실
박찬동
박창일
박태영
박한겸
박현정
박희준
백기민
백미연
백인붕
변상윤
변승옥
변영진
변윤하
빈명희
서미선
서은주
서정국
서정아
석유민
석은비
성소희
손봉옥
손은혜
손진숙
송은경
송점희
송힘찬
신미현
신영순
신윤희
신준영
신현옥
신효리원
심기쁨
심은수
심재현
심정훈
심주은
심희종
안성철
안예지
안혜진
안효영
양강혜
양석주
양선희
양은선
양은정
엄정숙
여수교
오여주
오윤선
오지순
옥새힘
원미영
원혜진
유동식
유동연
유봉임
유예림
유재은
유지연
유현수
윤경중
윤명실
윤미선
윤부진
윤선영
윤수영
윤영덕
윤현숙
이경미C
이경자B
이계상
이기숙
이기순
이대환
이도홍
이동훈A
이문승
이미경
이선숙
이수경
이수자
이순옥
이승근
이승현
이안나
이영춘
이영현
이예숙
이요셉A
이우현
이유진D
이윤정A
이은경C
이인숙B
이정미
이정은B
이주연
이지
이지현
이춘수
이하영
이한영
이현경
이혜련
이혜연A
이혜진
임동빈
임미숙
임영주
임윤이
임재길
임하영A
장경숙
장미연
장수연
장옥
장춘미
장향숙
장현경
장현주
전상연
전상현
전성희
전하라
전하리
정경미
정경희A
정범용
정수덕
정수연
정승월
정영순
정옥희
정원대
정의섭
정일혜
정정금
정지윤
정창용
정채경
정치원
정해용
정회옥
조길호
조수연B
조영희
조은주
조정훈
조현주
조희정
지명순
지아름
진광희
차영화
차은주
최고운
최귀화
최금주
최길순
최미선
최미숙
최미향
최민영
최승하
최영미
최영임
최요한
최인선
최인성
최재선
최춘실
최해진
최향병
최현혜
최화영
추혜민
추희정
피노라
하영지
한경근
한경석
한금자
한상인
한행복
허남성
허신구
허영주
허은희
허진주
허혜숙
현진이
홍석희
홍순옥
홍영미
홍영이
황국영
황순원
황철호
외 1명

후원자B
곽성호
권현우
김명자C
김미연
김서영
김영찬
김영희F
김옥연
김윤덕
김은숙B
김정숙B
김효임
남민경
명영철
박봉희
박선경
박월순
배상아
서옥남
서정선
서희진
송승훈
안미자
안영순
안지영B
양숙경
유애영
유은주
유제성
유형근
윤영아
윤은실
이경자A
이명주
이명진
이세희
이영숙
후원자C
이옥남
이유민
이은선
이주영C
이지선
이추자
이해숙
이행자
임수희
장동금
장상길
장정희
장춘애
전문선
전미경
전미숙
전중열
정경호
정다희
정영수
정유순
정은미
정정금
정지현B
정현희
지선자
지선화
차지현
최동숙
최미선C
최선순
최승배
최태이
최혜숙
편재숙
홍정민
황혜경
후원자C
강영대
고영미
곽동창
권화영
김경희
김동응
김미숙A
김범일
김복리
김삼선
김신애
김은영J
김은정A
김인선B
김자영
김주희
김지영D
김진우
김학진
김혜정B
김효은
남기웅
남완주
남희정
문경원
문백란
박미선A
박신영
박외숙
박정현
배경애
배상미
백문옥
서경덕
서다운
서유미
성백란
손순덕
신혜연
안선미
양은주
양재란
염수환
우성배
우한석
유재명
유주화
윤우식
이가은C
이명자
이병두
이병찬
이영미A
이재희
이제형
이주연
이주은B
이현정D
임선우
임연정
임현수
장남임
정미경E
정슬아
조귀순
조석봉
주영광
최연하
최영재
최헌
홍가순
황남희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열린교회 **발행인** 김성진 **편집인** 진광희 **편집부** 열린교회행정센터 **편집주간** 류요한 **디자인** 디자인집 (02)521-1474
주소 14059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39번길 31 **전화** 1661-4372 **팩스** (031)421-9411 **e-mail** yullin@yullin.org **URL** www.yullin.org

열린교회

주바라봄2 _ 시작이야기

새로운 세대에 임하실 은혜를 염원하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전 1:4). 2024년 봄, 우리는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는 역사의 한 복판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풍상고절(楓霜苦節)의 고난 중에도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은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그 긴 세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을 보며 아파하면서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은혜의 감격을 누려왔습니다. 그 모든 순간, 교회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분이 선하신 분이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교회를 지켜 여기까지 인도해주셨음을 또한 두렵고 떨림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올해를 시작하며 새로운 한 세대, 새 한 해를 여는 교역자팀 안에는 작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지난 30년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위에 계속되기를 바라는 기도의 소망이 그것이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들었던 모압 평지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 위에 주님이 새롭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온 교회가 그분의 발아래 다시금 엎드리길 구하는 은혜를 염원하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유익한 가르침이더라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 우리가 행해야 할 일들을 말하는 조언(good advices)은 결코 복음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복음은 하나님 앞에 아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독생자가 행하신 일들(Good News)을 바라보며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 교회 위에 그 복음을 들려주시고 온 교회가 함께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갈망이 모여 지난 40일의 '주 바라봄'은 시작되었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자리,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는 자리. 이 '주 바라봄'의 40일은 결코 우리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이 이끌어 오신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날마다 1천 명 이상이 새벽을 깨워 40일간 4만여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강단에서 부으시는 말씀을 통해 구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맛보았습니다. 누군가의 나눔과 같이, 41일을 지나서도 주를 바라보는 날들이 계속되게 하시길, 우리 평생에 날마다 주를 바라며 하나님 살아계시고 은혜 베푸시는 놀라운 일들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주바라봄기도회 교역자 TF팀)

주바라봄3 _ 설교간추림

마가와 함께 따라간 예수의 길

본 칼럼은 40일간 주바라봄기도회에서 누린 은혜를 떠내려보내지 않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드리는 '작은 선물'입니다. 과도하게 요약되었지만 놓치는 포인트는 없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여백활용을 위해 주어가 생략된 문장이 많고, 띄어쓰기 규칙을 엄격히 지키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편집부)

1일차 **광인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막 5:1-20)
문화적 혜택 아래서 부유했으나 향락이 가득한 데가볼리/귀신들림은 영적인 문제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대로 살아갈 수 없는 상태/더러운 영이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한 사람이 아니라 지역 전체/예수께서 향락적 세상을 말씀으로 회복시키실 것을 보여주심

2일차 **절박한 믿음으로 회복된 여인**(막 5:21-34)
열두 해를 혈루병으로 고생하며 가산을 탕진한 여인/그녀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을 불결하게 했기에 격리되어야 했음/절박함의 마지막 소망으로 주의 옷자락을 만짐/"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여인의 육신의 회복뿐 아니라 종교적·사회적 차별에 대해 위로하심

3일차 **더 큰 믿음을 위한 고난**(막 5:35-43)
야이로의 죽어가는 딸보다 혈루병 여인을 먼저 고치신 예수님/혈루병 여인과 야이로 사건은 연결된 하나의 사건/여인에게 하신 격려의 말씀은 동시에 야이로에게 하신 믿음의 촉구/혈루병여인 치유는 야이로를 위한 '현장학습'/딸의 죽음 소식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담대함/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큰 것을 예비하시고 주시는 하나님

4일차 **익숙함이 주는 덫을 벗어나는 길**(막 6:1-6)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가 가르치는 놀라운 지혜와 권능을 보면서도 익숙함 때문에 그를 배척하고 죽이려 함/불신하는 나사렛에서는 다른 곳에서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을 행하지 않으심/신앙과 전통에 익숙해져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에 대한 기대감 없이 살고 있지는 않은가

5일차 **듣고 삼가 행하라**(신 6:3-9)
신앙생활은 보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것/쉐마의 말씀(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한 분이심,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을 잘 배우고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이 가정과 교회의 사명

6일차 **긍휼의 오병이어**(막 6:30-44)
쉬지 못한 제자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이끄시며 한적한 곳으로 나아갔던 빈 들/그 곳까지 좇아온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이 여기시며 긴 시간을 가르치심/오병이어는 '날이 저문' '빈 들'에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사 행하신 긍휼 사역/주님은 여전히 목자 없는 양 같이 방황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분

7일차 **긍휼의 바다 가운데에서**(막 6:45-56)
긍휼의 떡 앞에서 군중들은 예수님을 강제적으로 왕으로 세워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려 하였고 제자들은 예수를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교만의 마음이 강해짐/군중과 급히 분리시켜 제자들은 바다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심/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치유의 목적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이는 것임을 깨닫게 하려고 광풍 가운데 제자들을 두심/군중과 제자들처럼 자기의 탐욕을 채워주는 예수를 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8일차 **전통을 넘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막 7:1-13)
하나님의 말씀보다 미쉬나(장로들의 유전)를 더 중요하다고 믿은 유대인/"외식하는 자(연극배우)들아!"라고 하시며 본질이 아닌 각색된 인생을 살아간다고 질책하심/외식의 대표적인 예는 '고르반'제도/고르반 제도를 이용해서 종교지도자들은 더 많은 헌금을 걷었고 일반인들은 구제·헌금·부모봉양의 의무를 피함/전통을 지키려는 열심이 더할수록 율법을 파괴하는 결과 낳음/모든 선입견과 종교적 습관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서야

9일차 **형식을 넘어 말씀의 본질로**(막 7:14-23)
613개의 율법에는 한시적인 법과 영원히 지켜야 되는 절대적인 법이 있음/종교지도자들은 절대법은 무시하고 형식법은 과장하여 전통을 만들어낸 것, 할례와 음식정결법이 대표적/음식은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지 않고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든다는 가르침은 율법을 폐기하신 것이 아니고 완성하신 것/예수님의 율법 완성은 이후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토대가 됨

10일차 **겸손의 믿음이 이루는 기적**(막 7:24-37)
딸을 고쳐달라는 간구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하심으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방 여인에게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심/"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나에게 주십시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치유받음/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에는 반드시 믿음을 요구하심/귀먹고 말더듬는 사람을 침 뱉어 고쳐주신 것은 믿음이 연약한 이방인들이 바라는 방식(영적 능력 있는 자의 침에 능력이 있다고 믿음)으로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배려

11일차 **광야에서 경험하는 광주리의 은혜**(막 8:1-13)
데가볼리(이방인 지역) 광야에서 사흘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군중/가져온 음식이 다 떨어져서 돌아가는 길에 쓰러질 사람들도 있을 상황,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배불리 먹이시고 일곱 광주리 떡을 남기는 칠병이어의 기적 행하심/달마누다 지역에서 바리새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표지판)을 구했는데 이는 실체가 아닌 간판을 보여달라는 격/표적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실체이신 주님을 구하는 자 되어야

12일차 **나의 관심에서 예수님의 관심으로(막 8:14-21)**
마가복음에는 배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예수님의 '선상수훈'이 3번 나옴-친숙한 생업장소인 갈릴리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의 '신학교'/우리의 학교·가정·직장·사업체가 바로 갈릴리바다/생계와 성공을 위해 일하고 공부했던 현장들이 사명의 장소로 변해야

13일차 **나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리스도**(막 8:27-9:1)
예수가 누구신가 질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대답/그 고백 이후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시는 사명을 이루시겠다 알리심/베드로가 정색하면서 예수님께 '항변'('꾸짖다' '질책하다')/베드로는 이 땅에서 영화와 권세를 누리게 하는 메시아를 생각/주님은 그를 '사탄'이라고 하시며 참 제자가 되려거든 세 가지(①'자기를 부인하고':너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그 그리스도를 부인하고②자기 십자가를 지고:삶으로 살아내는 십자가③주께서 걸어가신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길을 따라야)를 행하라 가르치심

14일차 **고난은 없고 영광만 구하는 제자**(막 9:2-13)
'변화산 사건'은 예수께서 율법을 완성하실 분이고,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되심을 제자들에게 증명한 사건/고난받는 메시야를 강하게 거부했던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 위해서 변화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시고, 다른 제자는 유대 율법에서 요구하는 두 명의 증인

15일차 **다시 또 한번의 믿음**(막 9:14-29)
귀신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제자들과 아이의 아버지를 '믿음 없는 세대'라고 책망하심/아이 아버지의 "당신이 무엇이라도 지금 해주실 수 있거든"은 예수님의 능력에 의한 기적을 요청한 것/"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너의 믿음이 할 수 있는 것"이라 답하신 예수님/자신은 믿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능력에 의해 기적이 이루어질 것을 원하는 것은 '기독교 무당'/주님은 제자들의 실패 원인을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책망하심/믿음은 날마다 기도로 훈련할 때 그 능력을 갖게 됨

16일차 **고난과 영광의 역설**(막 9:30-37)
예수의 고난고지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 첫 번째는 분노(베드로), 두 번째는 침묵(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함)/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제자들이 높아지려고 하는 갈등이 세 번의 가르침에서 계속됨/고난예고 후 가르치신 제자의 삶의 원리는 세상 가치가 역전된 형태-"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첫째가 되고자 하면...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세상의 가치를 예수의 가치로 바꾸는 변화가 필요

17일차 **소금과 같은 긍휼의 공동체**(막 9:38-50)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일을 금지시킨 제자들에게 연자맷돌을 매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보다 심한 벌을 받게 될 것이라 엄중하게 경고하심/예수의 제자는 긍휼의 사람이어야-물 한 그릇의 긍휼만 베풀어도 상을 주심/극단적인 표현("손, 발, 눈을 빼버리라")까지 사용하시면서 가르치고자 했던 것은 화목/소금의 두 기능(정결케 되는 종교적 의미와 건강을 위한 의학적 의미)처럼 서로를 향해 부족함을 채워주고, 힘을 주어야

18일차 **나뉘지 못하는 사랑**(막 10:1-12)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라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예수님께 던진 이중의 덫(세례 요한을 죽인 방식으로 예수를 죽이려는 의도)/모세의 율법에는 이것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되물으심/여성을 보호하려고 만든 이혼증서가 유대 전통에서는 여성을 내쫓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었음/"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결혼의 의미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있음을 밝히심/삶의 영역에서 '긍휼'이 가장 드러나야 하는 곳은 가정

19일차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제자**(막 10:13-22)
두 부류의 사람 중 누가 예수님의 제자인지를 가르치시는 중/첫 부류인 가장 연약한 계층인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만져주시기를 구했을 때 제자들이 꾸짖음/힘 없는 사람은 예수님께 가까이 못 가도록 미리 막아버리는 제자들에게 분노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받는 자)의 것이니라" 충격적인 선포하심/두 번째 부류의 부자 청년이 등장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계명의 지식에서 계명의 실천으로 나아가기를 가르치심(내려놓음의 제자도)

20일차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막 10:23~31)
'부자 청년' 후에 혼란스러워 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개인과외'적 가르침/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심히 어렵다고 말씀하심으로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심/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던 구원론에 대한 혁명적 진리/헌신과 결단을 스스로 높이고 있는 제자들에게 세 가지-백배의 보상(믿음의 공동체와 하나님나라), 박해, 영생-를 주겠다고 하심/"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가장 연약한 자가 되어야 하고, 그 끝이 된 자가 나중에는 첫째가 되는 자가 많으니라"

21일차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서는 삶**(막 10:32-45)
박해가 그들의 헌신의 대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충격받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고난을 마지막으로 예고하심/이 말씀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자신들의 나라를 예수님한테 설득하는 제자들/예수님의 좌우에 서는 것은 영광이 아니라 고난의 길임을 가르치심/최초로 예수님의 고난과 인류의 대속을 연결시켜 선포하심

22일차 **눈을 떠서 바라본 하나님 나라**(막 10:46-52)
구약의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였던 것처럼 신약의 여호수아이신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보여주심/부자 청년은 따르지 못했던 제자의 길을 바디매오는 따름/세상의 것에 대한 집착이 적을수록 영적인 눈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 있음

23일차 **참된 호산나의 기도**(막 11:1-11)
이제부터의 사건들은 주님의 지상에서의 마지막 일주일에 대한 기록이며 상징성을 가짐/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애 찬양이었던 슥 9:9의 실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심/"호산나"찬양은 나귀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 것/그러나 그들이 원했던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다윗의 나라'/이 환호는 얼마 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외침으로 변할 것을 아신 예수님은 이 속에서 침묵하심

24일차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막 11:12-26)
성경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를 설정할 때 무화과나무로 설명/무화과나무는 잎이 무성하면 작은 열매를 반드시 맺음-작은 열매라도 맺어야 했던 무화과나무는 바로 이스라엘/둘째날,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열매 없이 북적대는 사람들로만 채워진 성전과 연결하여 저주하심/셋째날, 무화과나무처럼 뿌리째 말라서 아무런 생명력 없는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심/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은 이 사건 40년 후인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파괴됨

25일차 **우리 삶의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막 11:27-12:12)
산헤드린 구성원이 직접 예수를 만나러 와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성전청결사건)을 하였느냐" 질문/권위를 거짓으로 밝혀 예수님을 잡기 위함/"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되질문하심/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이들의 타락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심/"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십자가가 결국 하나님 나라의 초석이 되며 명패가 될 것임을 선포

26일차 **산 자의 하나님**(막 12:13-27)
유대교 각 계층이 자신의 신학적 입장을 가지고 4번('권위' '세금''부활''첫째계명')질문해서 예수 죽일 구실을 찾으려 함/"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가이사의 것은 곧 사라질 세상의 재물이며 세금으로 바쳐도 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영혼과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바쳐져야 함/"만약에 부활을 하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입니까?"-부활하면 천사와 같아지며, 이 땅에서의 남편과 아내·부모와 자녀의 의무들은 사라진다고 가르치심/"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야곱의 하나님이로다"-과거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

27일차 **사랑으로 완성되는 믿음**(막 12:28-34)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은 각각이 아니고 하나/사랑의 순서-하나님을 사랑, 자신을 사랑, 이웃을 사랑/사랑의 방법-하나님은 전 인격적으로, 이웃은 우리의 존재를 가지고/"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칭찬하시면서 사랑의 실천이 부족한 것을 경고하심

28일차 **두 렙돈 과부의 눈물**(막 12:35-44)
성전을 떠나시기 전 마지막으로 전한 가르침:서기관들에 대한 비판과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주장하는 서기관들의 신학은 민족적 한을 풀어주는 해결사를 원했던 이기심의 발로였음을 비판하심/긴 옷을 입고다니며 대접받으려했던 서기관들의 교만과 외식은 과부의 재산을 삼키기까지-과부의 마지막 생활비 두 렙돈(3000원)까지 헌금함에 넣도록 고안하여 백성의 고혈을 짜냄/이렇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긍휼과 자비가 없는 성전에 멸망을 선포하심

29일차 **주의하라 그리고 조심하라**(막 13:1-13)
"이 돌들이 얼마나 거대합니까?"성전 외양에 감탄하며 여전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말씀하심/충격받은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와 징조를 질문/예수님의 대답은 "주의하라""조심하라"-성전 멸망이 사람(거짓 메시아)의 미혹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며, 성전의 멸망과 함께 시작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 대한 핍박이었으므로 마음을 지키라 하신 것/성령을 의지하라 하시며 성령을 처음 소개하심

30일차 **재난과 재림 사이의 이중의 시간 안에서 살아가기**(막 13:14-27)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때"(우상이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 성전에 우뚝 서있는 때)가 재난의 징조/70년에 이 예언은 1차적 성취, 예수님의 재림 때 최종성취/해·달·별·하늘·권능들이 무너지는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종말론적 신앙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야

31일차 **깨어 있으라 문지기여!**(막 13:28-37)
재난의 '때'를 특정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단임/재난이 성도에게 주는 의미-예수님이 이 재난들 뒤에 오심/이때 제자들의 사명은 인자를 기다리는 것/기다리는 사명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된 두 비유(무화과나무 비유와 문지기 비유)/복음으로 교회를 지키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문지기로 살아야

32일차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막 14:14-27)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의 준비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죽음에 관한 준비가 대조되어 서술/한 여인이 300데나리온(300일치 임금)향유를 예수님께 부음으로 그분의 장례를 준비 vs 예수를 통해 이루려던 야망이 사라지는 것 같을 때, 예수의 몸값이라도 벌기 위해 예수를 파는 가룟 유다/향유를 깨뜨린 여인을 칭찬하시며 주님의 죽음을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으로 준비하는 사람만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선포하심

33일차 **슬픈 유월절 만찬**(막 14:12-21)
마가는 유월절 만찬 장소 선정을 설명하면서 십자가를 향해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예수의 모습을 드러냄/어렵게 마련한 만찬장에서 갑자기 배신자가 있다고 말씀하심/마가는 그 제자를 끝까지 밝히지 않음/모든 제자가 예수를 버리는 행동을 할 것을 아시고, 나중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는 의도/가룟 유다에게 경고하시면서도 그가 돌이키기를 바라셔서 기회를 주신 것/지금도 우리의 죄를 감추시며 기회를 주시는 주님

34일차 **유월절의 새로운 의미**(막 14:22-31)
유월절에 먹는 무교병의 기능을 예수님의 몸이 대신하겠다고 하심/이 떡을 먹는 사람들은 예수의 몸을 먹은 자들이고, 예수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는 자/포도주는 '언약의 피'로서 이 잔을 마시는 자는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되는 것/긍휼사역이었던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기적의 패턴을 그대로 재현하심으로써 제자의 길이 굶주린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살리는 사역임을 보여주심

35일차 **겟세마네 동산의 아담**(막 14:32-42)
변화산 사건의 세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심/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에 제자들이 '공감'하고 '동참'하도록, 곧 닥칠 시험에서 그들이 실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제자들은 육적인 일로 피곤한 눈, 영적으로 어두워서 뜨지 못하는 눈 때문에 기도하지 못함/올리브 산이었던 감람산에서 올리브 기름을 뽑아내는 것 같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하심/에덴 동산에서 실패했던 아담의 불순종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순종으로 바꾸심/이 기도에 사용된 단어가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짐

36일차 **배반의 입맞춤**(막 14:43-52)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면밀히 준비해온 가룟 유대와 경비대의 모습, 이들보다 더 오래 전부터 순종으로 붙잡히시길 결단하신 예수님. 아무런 준비 없이 예수님의 붙잡히심과 함께 그들의 고난을 맞은 제자들의 실패가 대조되어 나타남/성경에서 '입맞춤'은 충성과 순종의 행위였으나 가룟 유다는 '배신'의 입맞춤/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함-기도하지 않고 당하는 고난은 결코 피할 수 없고 수치를 당하게 됨

37일차 **진실된 증인과 거짓 증인**(막 14:53-72)
몇 시간만 묵비권을 행사하시면 재판을 역전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메시아이심을 밝히심 vs 아무런 법적 효력도 없는 여종 앞에서 예수를 부인한 베드로/두 장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두 기도의 결과/첫 번째 모닥불 앞에서 예수를 세 번 부인함으로 실패한 베드로를 두 번째 모닥불 앞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심으로 회복시키신 예수님(요 21)

38일차 **믿음의 침묵**(막 15:1-15)
산헤드린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는 로마총독에게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정치적 명분을 주고, 군중들에게 예수가 거짓 선지자였다는 것을 증명했어야/"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빌라도의 정치적 사형의 조건을 찾기 위한 질문)에 "네가 말하였도다"("그것은 너의 말이다""그것은 저들의 이야기다") 답하심/빌라도는 거짓 증언들 앞에서 침묵하시는 예수의 모습을 보고 놀람/침묵하시면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신 주님/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의 때는 침묵하며 걸어가야

39일차 **우리를 위해 당하신 수치와 능욕**(막 15:16-32)
사형선고 이후 로마 군인들의 군영으로 끌려가셔서 채찍 맞으시고 조롱과 모욕당하심/많은 출혈과 상처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실 수 있는 힘이 없으셨음/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고 올라가면서 일생일대의 변화를 겪음(롬 16:13, 그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로마 교회의 일꾼이 됨)/마가는 예수님을 모욕한 세 부류(지나가는 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십자가에 달린 폭도들) 기록에 집중/시 22 말씀을 생애 가운데 다 이루신 예수님

40일차 **십자가의 능력**(막 15:33-47)
3시간 지속된 어둠(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심판의 표증)/마지막 고통의 순간에도 말씀(시 22:1)을 하시고 돌아가심/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짐-예수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됨/예수님의 사형을 담당한 백부장의 변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공회원 자격 박탈의 위험을 무릅쓰고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구한 아리마데 요셉의 변화/십자가 죽음을 지켰던 여인들-연약한 자를 통해 전파되는 복음

주바라봄4 _ 맺음이야기

* 되도록 다양한 의견을 전하기 위해서 긴 글은 발췌하여 게재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새벽을 깨워주시고 건강과 모든 상황들을 지키시고
돌봐주셨기에 40일의 여정 가운데 하루도 게으름 피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주 바라봄 특별 새벽기도회는
마쳤지만 주님 주시는 은혜와 힘을 공급받아
기도의 자리에 열심히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 감사하여 남은 생을 주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김청자)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꼭 필요한 것이
영혼의 만나라는 것을 이번 기도회를
통해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광야에 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베푸셨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변함없이 은혜의 만나를
새벽마다 베푸십니다.
(김환)

언젠가 타임머신이 있다면
언제로 가겠냐는 질문에 예수님이 살아
계셨던 그 시간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듣고 싶다고 대답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기도회 말씀은 타임머신처럼 저를 그 때
그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회당의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고, 그 옷자락의 감촉이
느껴지고, 헌금하는 과부의 야윈 손을 보고,
향유의 냄새를 맡으며, 그렇게
매 새벽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혜련)

다 함께 눈 오는 날
시작해서, 봄꽃 필 때
끝났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함께가 아니었다면
하지 못했을 기도회가
은혜로웠습니다.
(김효숙)

현장에서 함께하지 못해
참 아쉬운 마음입니다.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데 몸이 아직은 새벽예배를 달리기에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연약함을 핑계 삼아 육신의 게으름으로 대신하여
최선을 다하지 못한 시간들을 후회하며 다음
기회에는 최선을 다하여 동참해보고
싶습니다.(황희선)

첫날 본당을 들어서면서
뜨거운 열기가 확 느껴졌다.
아, 내 힘으로 내 발로 온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강권하셨구나!
매일 부어지는 말씀은 은혜의 도가니로 몰아넣어
때로는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그저 감사할 뿐이었다. 갓난아기부터 미취학 자녀,
초중고등부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참석한 모습은
신앙의 대를 이어주는 감동이었다.
청년들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대견하였고,
삶의 무게와 자녀들을 뒷바라지하느라 지칠법한
젊은 부부들과 장년들의 열심을 보는 기쁨도 끊이지 않았다.
백향목 어르신들의 청년같은 열정은
모든 지체들에게 도전을 주기에 충분하였다.
(김기현)

엄마랑
먹는 간식이 좋아서
따라갔는데
나중에는 새벽예배가
그냥 좋아졌어요.
(김다엘)

저는 특별한 기도제목이 없었습니다.
예배당에 앉으면 어깨를 짓누르는 무게감으로 기도의 문은 열리지
않았고... 집을 나서다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40일 동안의 기도제목들-
남편의 구원, 재정적인 어려움, 아이들의 회심, 제 인생의 비전들을 놓고 기도했던
그 어느 것 한 가지도 응답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피곤하고 힘든 중에도 하루하루
느껴지는 따스한 주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니 남편의 구원은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고,
남편이 종종 틀어주는 CCM이 너무나 감사했고 주일마다 교사 사역으로
바쁜 저를 대신해 아이들을 챙겨주는 남편은 알게 모르게 저와 함께
동역해 왔음을 느꼈습니다.(남미은)

열린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본당을 꽉 채운 성도님들을 보며
나도 교회에 나가야겠다는 다짐을 했고...
버스 첫차를 타고 가면 항상 찬양의 끝자락
이었지만 앉으면 감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저의 40일 여정은 내가 한 것 아니고 주님이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처음엔 나의 육신의
기도제목으로 시작을 했지만 점차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와
영혼을 위한 기도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기도가
나를 변화시켜주십니다.
(서유미)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
40일 동안을 주님과 함께 갈릴리나 예루살렘을 같이
거니는 시간 같았어요. 이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주님과
제자들의 십자가 여정에 생생하게 동참한 것 같습니다.
그 여정 속에서 동상이몽, 주님 말씀에 무관심, 자신의 영광만
구하고, 예수를 팔고,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 부활의 감격까지도
못 느끼는 제자들의 모습. 모두가 나에게도 똑같이, 그리고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제 나에게 주어진 남은 인생은 더 이상 나의 것을 위해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삶 내려놓고,
주님만을 간절히 바라며, 내 십자가 지고 그분만
따라야겠다는 새 마음이 생겨납니다.(변영진)

용인에서 두 아이를 키우고 있어 온라인으로
참석하였습니다. 말씀이 너무 좋아 내일의 말씀이 기대되고
하루를 살아갈 힘을 기도를 통해 얻게 되니 자연스럽게 전참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공동체가 함께 기도가 필요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유기적으로 연합되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정의 화목을 위해 기도했는데
기도회를 진행하는 동안 가정의 화목을 깨고 있는 저의
이기적이고 교만한 죄된 모습을 발견하였고, 자녀들의
회심을 위해 기도하면서 저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회개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이세희)

혼자였으면 해내기
어려웠을 텐데, '함께' 한다고 생각하며
해낼 수 있었습니다. 어두운 새벽길을
걸을 때 앞에서, 옆에서 같은 방향으로
묵묵히 걷는 지체를 보며 '나란히' 주님께 가고
있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홍순옥)

이전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세상과는 멀리한
나를 봅니다.
(정원대)

반백 년을
살아오며,
이렇게 간절한 설렘으로
부활절을 기다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임재길)

매일 새벽 고요한 시간 속에
말씀과 기도로 만나주셨던 주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내 모습을
내어놓고 많이 울었던 시간입니다.
개인적으로 갑자기 닥친 건강상의 문제로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새벽을
깨우는 그 시간이 너무 많은 위로와
은혜와 감사의 시간이
되었습니다.(정영수)

비록 온라인이지만
특새 40일을 완주함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남편의 병간호를 하면서
피곤하다는 핑계로 새벽예배를
그동안 드리지 못했는데
온라인 새벽예배의 습관을 들였고
가족들의 기도를 드리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지치고 피곤한 나날들이
었는데 새벽예배를 통해서 우울한
하루하루에서 힘차고 밝은 나날이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서옥남)

딸의 아픔을 통해
주님의 고난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며
받은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복음을 다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심
감사하고, 담임목사님의 귀한 말씀 섬김과
온 성도가 함께 은*이와 고*이를 위해
기도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고난을 통해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더욱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최영재·안지영B)

작년 3월
아기를 출산한 후 180도
바뀐 삶으로 인해 신앙의
힘마저 잃어갈 때에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시작한 40일 기도회
였습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참여하였고
매일 또렷한 정신으로 은혜를 누리진
못했지만, 작정한 기도제목 5개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또 엄마와 아내 그리고
나 자신으로서 각각의 역할에 대한 고민과
어려움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감사와
희망이 생겼습니다. 모든 어려움의 해결은
기도였습니다.
또다시 삶을 감당할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열심히 유지해 보며
살겠습니다.(김태린)

온전히 새벽시간에
예배를 드리지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올라온 기도회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출퇴근했습니다.
부활주일까지 40일 동안 많은 일이
있었는데, 불평이 아닌 감사가
먼저 나왔습니다.
두려운 순간에도 '내 믿음을 흔드는 영적
전쟁이 진짜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속상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정한밀)

고3 아들이
새벽예배를 다니고 싶다는
말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부르시는 거구나 생각하고
가족이 모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한 번도 새벽에 가보지 않던 남편이
완주했고 매일성경으로 17년을 묵상했지만
매일 다른 교회 설교를 들으며 기도했던
방황이 끝나고 드디어 열린교회 새벽예배 말씀과
기도로 하게 되니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넘쳤습니다.(조현주)

40일
'나는 안 된다'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 두 번
빠지다 보니 포기할까도 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마치 제 옆에 와 계신 듯했습니다.
그렇게 매일 주시는 은혜와 새 힘으로 새벽을
깨웠습니다. 스티커도 받고 싶었지만 30일이
지나며 나 자신에게 더 실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새 힘 붙들고 따라가자고
마음 잡으며 끝까지 일어나 참석하고 나니
저 자신이 너무 기특하네요. 7일 빠지고
33일 참석한 제가 자랑스럽습니다.
주님께 감사,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주경은)